10.15686/fkl.2024..62.10

망각된 식민지시기 기억의 복원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배상미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국어국문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창씨개명을 둘러싼 식민지 조선인들의 다층적인 맥락들을 기억하기
3 식민주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위치에서 기억하는 일본어 책읽기
4 공동체의 차원에서 재고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기억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 박완서의 소설이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을 논하였다. 특히 박완서의 대표작『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창씨개명, 일본어 책읽기,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어떻게 당시 주류적 담론과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는지 분석했다. 우선,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 창씨개명 이력은 '친일'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이 소설은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당대의 상황을 제시하여, 창씨개명 사실이 '친일'과 등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동안 공개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방기에 문학적 소양과 지적 열망이 있던 사람들에게 일본어 책읽기는 이를 해소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음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 주류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여성 '정조'에 대한 침해로 재현했던 것과 달리, 당시 10대 중후반 여성들과 그녀들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본 젠더화된 문제로 제시한다. 이렇듯 이 소설은 민주화 이후에도 '복원'되지 못한 식민지시기의 유산들을 '기억'을 매개로 재현하여, 식민주의에 대한 다층적이고 비판적 성찰을 촉구한다.

국문핵심어: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기억, 식민주의, 민주화, 복원, 창씨개명, 일본어 책읽기, '위안부'

1 들어가며

박완서 연구에서 1990년대는 다른 그 어떤 시기보다 특별하다. 1970년대에 데뷔한 이후, 박완서의 문학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그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사들이 '199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에 호응하며 또다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선행연구들은 박완서가 1990년대에 간행한 작품들에서 그녀의 자전적 경험이 시대적 맥락과 어떻게 호응하며 재구성되는지 분석한 바 있다.[1] 이 연구들은 주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이하『싱아』)와『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박완서의 두 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 경

험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소설들이 민주화와 반공주의의 완화라는 외부적 상황과 호응하며 한국전쟁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여 한국전쟁의 동시대성을 환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99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에 박완서 소설이 어떻게 호응하는지 분석하여, 박완서 소설이 가진 또 다른 정치적 측면을 밝힌 이들 연구는, 1990년대와 박완서의 관계를 분석할 때 중요한 참조점이 될 만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박완서의 자전 소설에도, 그리고 그녀의 회고와 에세이, 단편소설 등에서도 식민지시기에 대한 언급 빈도가 늘어나고 재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은 선행연구에 의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1990년대에 간행된 박완서의 문학이 반공주의와 냉전 질서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시기를 논의하는 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확장한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완서가 그동안 '복원'되지 못한 그녀의 기억을 바탕으로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 '다시 씌어진' 식민지시기는 박완서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침묵당한 다른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논하겠다.

1990년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냉전 질서가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주의 청산과 식민지시기 재인식에 관한 논의가 성장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1990년대의 일본 식민주의 및 식민지시기 재인식의 배경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일본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실린 조선의 식민화와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술들을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침략적이고 식민주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의 대중들은 매우 분노하면서 반일 시위와 일본의 이러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응하였다.[2] 이러한 일본의 교과서 개정 시도는 1986년에 한 번 더 이루어

1 김영미, 「박완서 문학의 세대론적 특성과 의미: 1990년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0호, 상허학회, 2020, 145-182쪽;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27쪽;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상허학회, 2004, 403-432쪽.

2 신주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17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222-229쪽.

지면서, 한국 내에서 일본 식민주의의 잔재에 대한 관심을 거듭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1월 윤정옥이 「정신대 취재기」를 한겨레신문에 연재하자,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1991년,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위안소 운영은 없었다고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김학순은 윤정옥이 주도하던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지인의 소개로 찾아가서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다.[3] 이후 1990년대 동안 계속된 '정대협'과 여타 국내외의 시민사회 및 학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했던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성찰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민족주의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해 온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확장되었다.[4]

이와 더불어 지식인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전두환 정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과거를 지적하면서, 민주화는 식민주의 청산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성장하였다. 이 인식은 한국 문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요구는 과거에 '암흑기'로 치부되었던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창작된 문학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그 시작은 문인들 중 일본 정부의 정책에 협력한 '친일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에 협력했는지 공개하는 것이었지만,[5] 점차 이들이 친일로 나아간 배경과 논리는 무엇이었는지,[6] 지금까지 '친일'이라고 명명되었던 행적들의 양가적 측면은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57-58쪽.

4 양현아,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들』, 삼인, 2001, 157-176쪽. 원전은 1997년 미국에서 간행되었다. (Elaine H. Kim and Chungmoo Choi ed.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1997)

5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1-3, 돌베개, 1993.

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태학사, 1998. 이 저서는 1994년 동일 저자가 간행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그의 정치적 이념과 연관하여」를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무엇이었는지[7] 밝히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친일'이 일본 정부의 정책에 협력한 모든 활동들을 가리키는 자명한 것으로 가정된 채 그 '친일' 행적을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에 어느 방식으로든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친일을 논하는 것은 한 개인을 비난하고 처단하는 수준이 아니라[8]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식민주의의 잔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박완서의 1990년대 소설에서 재현되는 식민지시기의 기억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이미 1990년대와 박완서를 논한 선행연구들이 언급했듯, 민주화 직후에 박완서가 당대의 분위기에 호응하며 발표한 작품들은 민주화를 극적인 변화로 재현하기보다, 과거에 억압된 이야기들을 말할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혹은 왜곡된 채 남겨지는 것들을 소재로 삼는다.[9] 민주화는 과거에 침묵해야만 했던 기억들과 사람들, 그리고 왜곡되었던 사실들을 자동적으로 복원시켜 줄 수 없다. 이선미가 분석한 것처럼, 과거에 '망각'은 기억을 말할 수 없어서 강요된 것이라면, 오늘날의 '망각'은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억을 말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10] 1990년대 박완서의 소설들은 민주화와 탈냉전이 변화를 가져다주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변화의 흐름 안에서도 드러나지 못하는 혹은 드러날

7 김재용,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8 민주화 이후 불어닥친 식민주의의 재인식 붐 속에서 '친일파 인명사전'을 간행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출판된 책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의 저자 중 한 명인 박영정은 유치진의 식민 말기 '친일' 행적인 국민연극 운동을 역설적으로 조선인 연극인들이 한데 모이는 기회를 제공했고, 일본의 감시하에서나마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기술한다. 그의 주장은 유치진의 국민연극 운동을 한 개인의 제국주의 추수 행위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맥락에서 이 운동이 미친 영향을 사고하도록 족구한다. (박영정,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3, 돌베개, 1993, 72-74쪽)

9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공모" 의식과 마음의 정치-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반교어문연구』 제37호, 반교어문학회, 2014, 371-400쪽.

10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상허학회, 2004, 421쪽.

수 없는 '망각'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논문은 『싱아』를 중심으로, 박완서가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11]하여 다시 기록하는 식민지시기의 기억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싱아』는 식민지시기부터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상황을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식민지시기가 1990년대에 어떻게 다시 기억되는지 다루는 이 논문의 목적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식민지시기를 다시 기억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전의 자전적 소설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식민지시기의 유산이 어떻게 해방 후에도 불편하게 잔존 혹은 변용되는지 보여준다. 식민지시기를 그 이후와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하는 이 소설을 통해, 박완서가 자신의 "기억"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1990년대의 식민주의 청산 논의들과 호응하면서 이들의 논지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의 식민지시기 기억들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싱아』의 식민지시기의 기억은 박완서가 1980년에 발표한 소설 「엄마의 말뚝 1」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 두 소설을 함께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소설에 나타난 '모성'과 '자전적 성격', 그리고 '성장 서사'에 주목하여, 두 소설의 공통점을 비교하였다.[12]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이 두 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11 박완서, 「작가의 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1992[2021, 5판], 7쪽. 물론 박완서는 같은 글에서 "소설이라는 집의 규모와 균형을 위해선 기억의 더미로부터 취사선택이 불가피했고, 지워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박완서, 위의 책, 7-8쪽)며 이 소설의 허구적 요소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서두에서 자신의 '경험'적 요소를 강조한 것은 기존의 193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전반에 걸친 주류적 담론과는 다른 자신의 소설 속 이야기를 '경험'이라는 단어 뒤에서 있었던 이야기임을 강조하면서도, 허구적 요소라는 소설적 성격 뒤에서 주류적 담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을 가능성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즉, 그녀의 소설은 '실증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허구'라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12 우현주, 「어머니의 법과 로고스(logos)의 세계: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엄마의 말뚝1」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49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77-203쪽; 조회경,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존재론적 모험'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31호, 우리문학회, 2010, 601-629쪽;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제25호, 한중인문학회, 2008, 179-202쪽; 조미숙,

10여 년이라는 시차와, 선행연구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두 소설의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그러나 『싱아』가 「엄마의 말뚝 1」의 식민지시기 기억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덧붙이는 기억들은 이전의 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990년대 박완서의 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소재들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의 박완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싱아』에 나타나는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과 관련된 기억들은 크게 창씨개명, 일본어 독서,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세 개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 소설이 1990년대에 나타난 변화들과 호응하며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다시 기억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박완서의 소설이 민주화와 더불어 일본의 식민주의를 재인식하기 시작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당시 주류적 논의와는 다른 식민지시기의 일상들을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했다는 것을 명분이자 방패막이로, 소설적 요소들을 지지대로 삼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박완서가 이 같은 '복원작업'을 통해, 여전히 식민주의와 전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2 창씨개명을 둘러싼 식민지 조선인들의 다층적인 맥락들을 기억하기

총 3권 분량의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반민족문제연구소 편, 돌베개, 1993)는 2009년에 간행된 『친일인명사전』(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의 기초가 된 책이다. 이 책은 여러 필자들이 식민지시기 저명인사 99인들의 '친일' 행적을 서술한 까닭에 서술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상당수의 글들이 '친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어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위해 종종 언급하는 이력 중 하나가 창씨개명이다. 예를 들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223-257쪽;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제4호, 여성문학학회, 2000, 247-266쪽.

면, 윤치호에 대해서는 "'선량한' 신민 윤치호에서 '충량한' 일본 귀족 이토 치카우(伊東致昊)로 입적한 채 일생을 마쳤다"[13]고 조롱한다. 이광수의 경우, 그의 창씨 방식을 밝힌 그의 글에서, 성은 일본 황실의 시조인 진무 천황이 즉위한 고큐산에서, 이름은 '광(光)'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洙)'가 일본식 이름에서 쓰이지 않으므로 '랑(朗)'을 선택했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발한 이름풀이"[14]라고 야유한다. 또한 어떤 필자는 최재서가 "이시다(石田)로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천황' 숭배론자로 전락하"[15]였다고 비난한다. 참고로 최재서의 호는 석경우(石耕牛)였기 때문에, 그의 호를 활용하여 일본식 인명인 이시다 코조(石田耕造)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유명인들의 창씨개명 사례는 당시 대다수가 조선식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광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 명의 유명인사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꿀 때 자신의 본래 이름 혹은 호를 활용하여 일본식으로 바꾸는데, 이는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창씨한 일반적인 방식이다.[16] 또한, '창씨개명'은 '친일파'들만 참여한 선별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모든 조선인들에게 조선식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정책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지만, 초기 두 달 동안 창씨개명에 참여하는 식민지 조선인의 비율은 2.2%에 머물러,[17] 창씨개명을 보다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마을 주민들에게, 학교 연맹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지

13 김도훈,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1, 돌베개, 1993, 159쪽.

14 임헌영, 「이광수: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3, 돌베개, 1993, 28-29쪽.

15 김재용,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 숭배론자로」, 위의 책, 82쪽.

16 창씨개명 정책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이 '창씨'하는 보편적인 방식들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양태호, 「창씨개명의 사상적 배경」,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 학민사, 1994, 125-128쪽) 조선총독부는 당시 창씨개명으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씨(氏)를 만들되, 이름은 기존의 조선식 이름을 지킬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양태호, 위의 책, 146쪽)

17 미야타 세츠코, 「창씨개명의 실시과정」, 위의 책, 73쪽.

화’가 더 진행될 한반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창씨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창씨개명이 마무리되는 8월에는 약 80%의 조선인들이 창씨하였다.[18] 오히려, ‘친일파’로 분류되는 유명인들은 창씨개명 정책 이후에도 조선식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19] 이와 같은 모순은 창씨개명과 같은 ‘동화정책’은 단순히 ‘민족정신 말살’과 같은 전형적인 구호로 설명될 수 없는 다층성이 존재했기에 발생하였다.[20] 그러나 이러한 창씨개명의 다층성은 199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21]

이러한 상황에서 박완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1990년대 초반 창씨개명에 대한 논의가 창씨개명이 시행되던 당시의 상황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아』의 주인공 가족들은 반식민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의식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최고 권위자인 조부가 창씨개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조선식 이름을 식민 말기에도 계속 사용한다. 조부는 황해도의 작은 마을 박적골에서 유일하게 ‘양반’으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지녔다. 그는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신분질서 및 가족질서에 집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신양명과 지적권위를 동경하면서 일본이 강요하는 식민주의 질서 중 일부를 긍정하며 이를 추종하려는 모순을 보인다. 이는 마을과 가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그의 권위주의적인 면모는 일본식인 양력 책력을 따라 설날도 지내고 정부 관료가 된 아들과 손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성리

18 위의 책, 73쪽.

19 예를 들면, 최재서가 주간했던 월간 문예 종합잡지 『인문평론』의 경우, 1941년 4월호로 종간될 때까지 최재서를 비롯한 모든 조선인 필자들의 이름이 조선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0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징병을 위해 조선인들을 ‘황민화’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지만,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동일시되는 것은 우려하였다. 일본 정책에 협력적인 조선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동화정책의 모순을 간파하고, 어차피 창씨를 하여도 민족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회의하기도 했다.(미야타 세츠코, 앞의 책, 90-91쪽) 창씨개명을 비롯한 여타 일본의 동화정책들은 일본에 ‘동화’되고 싶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욕망조차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호한 것이었다.

21 미야타 세츠코, 김영달, 양태호가 1992년에 『창씨개명』을 출간할 당시까지 이 주제에 관해서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 한 편의 논문도 씌어지지 않았다”(미야타 세츠코, 「서문」, 위의 책, 3쪽). 한국에서는 1999년에 홍일표가 간행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가 최초의 연구이다.

학적 생활질서를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창씨개명도 절대 반대하는 측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소설이 식민주의적 문화와 정책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일관성 없는 조부의 기준과 권위주의적이기만 한 그의 허위의식을 재현하여 그를 희화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과거에 익숙했던 문화와 새롭게 들어온 식민주의적 문화 사이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한 혼란을 재현한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는 창씨개명을 둘러싸고 박적골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의 엇갈린 반응들과도 관련이 있다.

> (…) 성을 안 갈아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건 면서기인 큰숙부련만, 면서기 정도의 관직도 출세한 것처럼 여기는 할아버지가 창씨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상하도록 줏대 있게 구셨다.
> 그게 할아버지의 모순이라면 음력설만이 조선 설이라고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지켜 나가면서도 성 가는 건 알아서 간 건 마을 사람들의 모순일 터였다. 우리 엄마도 물론 알아서 기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지만 나는 그와는 좀 다른 까닭으로 역시 창씨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면 '보쿠엔쇼'가 되는데 비상시국이 되면서 방공연습을 매일같이 했는데 방공연습을 일본말로 하면 '보쿠엔슈'가 되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방공연습 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 창씨개명을 하면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읽게 되는데 하나코니 하루에니 하는 여자 이름이 그렇게 듣기 좋고 부러울 수가 없었다.[22]

위 인용문에 제시된 박적골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 간의 차이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을 했다고 일본 식민주의 정책에 찬성한다거나,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을 보여준다. 이 인용문에서 박적골 사람들과 '나'의 가족 간의 차이와, '나'가 창씨개명을 하고 싶었던 이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2 박완서, 앞의 책, 144쪽.

이 소설은 조부와 박적골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본의 정책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 조선의 전통을 따르는 등 일본의 정책에 대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재현한다. 이들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조선식으로 명절을 기념하는 문화적인 수준의 저항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23] 창씨개명과 같은 행정적인 수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시에 받을 불이익은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 명백하기에, 이 방침에 순응한다. 동시에, 이 소설은 성을 바꾸지 않은 조부를 '친일'하지 않은 민족지사 대신, 그의 일본식 책력에 대한 신봉을 언급하며 그 역시 '모순' 속의 한 명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하급 관료였던 숙부의 존재를 통해, 조부와 그의 가족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물질적인 배경을 드러낸다.

조부와는 달리 '나'는 창씨를 하고 싶다고 밝히는데,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방공연습이 일상이었던 학교에서 방공연습(防空演習, ぼうくうえんしゅう)과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녀는 "하나코나 하루에" 같은 일본식 이름을 희망한다. 여기에서 당시의 식민주의와 전시상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읽어낼 수 있다. 하나는 일상으로서의 방공연습이다. 방공연습은 일본을 향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므로, '나'가 조선인이지만 일본인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조선식 이름도 일본식으로 불리는 교실 환경이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이 모두 같은 법규 아래 교육을 받게 되면서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실시된다. 내선공학제인 학교만이 아니라 조선인들만 재학 중인 학교에도 적용된 이 원칙은 조선 내에서 일본어 및 일본의 권위를 강화하는 과정이

23 조선총독부에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양력이 책력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원칙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총독부는 추석과 단오는 음력으로 기념하는 것을 용인했지만, 설날은 양력책력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정근식, 「시간체제와 식민지적 근대성」, 『문화과학』 제41호, 문화과학사, 2005, 151-154, 167쪽) 음력 설을 쇠는 가구에는 치명적인 처벌은 아니었으나 제재를 가하고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음력 설을 쇠었고, 이를 조선인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했다. (안주영, 「일제강점기 경성(京城)의 음력설과 양력설: 북촌과 남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68호, 비교민속학회, 2019, 220-233쪽)

기도 하다.[24] 마지막으로, 그녀가 희망하는 일본식 이름은 '전쟁'이나 '공격'이 주는 의미와는 상반되는 꽃(하나코: 花子)이나 봄(하루에: 春枝, 春江)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나'가 창씨개명을 하고 싶은 이유는 일본식 이름이 갖고 싶다거나 조선식 이름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방공연습'과 같은 전시 상황과 직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창씨를 희망하는 '나'를 단순히 황민화교육에 물들어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한 초등생의 모습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일본식 독법이 식민주의만이 아니라 전시상황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불편함을 '창씨'를 통해 해소하려는 아이러니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씨개명'은 『싱아』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반응을 둘러싼 다층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엄마의 말뚝 1」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후자에서 조부는 '나'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통풍 투병을 하면서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위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싱아』의 조부는 투병 중에도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며, '나'의 가족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부의 존재는 '창씨개명' 여부가 일본 식민주의 동의 여부와 일치될 수 없었던 식민 말기의 상황을 소설 속에 재현하는 매개가 된다. 이를 통해 박완서는 창씨개명을 1990년대 초반 당시의 주류적 논의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여지를 마련한다.

양태호는 창씨개명 연구와 관련된 대담에서, 그동안 '조선인'[25]이 "창씨개명의 진정한 배경은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납득해버리는 식으로 간과해"온 것을 창씨개명 연구가 미진했던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지배를 받았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든가, 또는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었나 하는 문제의식은 적었던 것"[26] 같다고도 덧붙인다. 양태호는 조선인들이 일본지배를 회고하면서 이는

24 이상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일본어 교육의 실태: 사회적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128-132쪽; 백동훈, 「일제 시기 '內鮮共學制'의 운용 양상: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29-32쪽.

25 양태호는 '조선인'을 한반도를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특히 현재 한반도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전제하고 있다.

"나쁘"기 때문에 창씨개명도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고 억압해온 지배정책 중 이름마저 바꿀 것을 강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만 취급해버리고 창씨명을 사용해야만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상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태호의 주장에는 창씨개명과 같은 식민지배 정책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섬세하게 연구하기 어려운 토양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자리한다. 박완서는 정확히 양태호가 지적한 이 전형적인 조선인들의 태도와는 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녀는 그녀와 가족들이 어떤 맥락에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는지 재현하여, 창씨개명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일본의 억압적 정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그녀가 일본어로 소설을 읽으며 소설가로서의 자산을 쌓아갔던 경험을 재현하는 부분에서도 반복된다.

3 식민주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위치에서 기억하는 일본어 책읽기

박완서는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실시될 즈음인 193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본어 전용 교육 및 군사주의 교육이 병합되어 있던 시기에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 재학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중단했던 중등 교육 과정을 이어갔던 사람으로서, 식민주의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직접 체험했었다. 실제로 박완서와 동년배 혹은 박완서보다 조금 높은 연배로서 형식적인 동화교육이 정비된 1920년대 이후부터 근대적 학제 하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식민지시기에 조선어로 문학을 창작해보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 문학 활동을 시작한 문인들은 한글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들어서면 문인들이 일본어로 먼저 생각하고 한국어로 창작하는 경험을 고백하거나, 해방 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들을 언급한다.[27] 식민지시기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해방 이후에 한글 사용과 관련하여

26 양태호, 「'창씨개명' 연구의 의의와 과제」,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 학민사, 1994, 150쪽.

27 한수영, 「'상상하는 모어'와 그 타자들: '김수영과 일본어'의 문제를 통해 본 전후세대의 언어인식과 언어해방의 불/가능성」, 『상허학보』 제42호, 상허학회, 2014, 456-469쪽.

겪는 문제들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이호철과 같은 문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곤경을 고백하면서, 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김우창 같은 평론가는 일본어의 '잔재'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글쓰기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흔적과, 일본어가 학술적 제1 언어임을 가감 없이 드러낸 김수영의 사례는 예외적이었다.[28]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 식민지시기에 교육을 받았던 적지 않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해방 직후에는 물론이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공적·학술 언어로서 일본어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적 자양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본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완서 역시 인터뷰와 산문 등에서 그녀의 독서경험을 밝히면서 일본어로 읽은 소설들과 일본 소설들이 그녀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다.[29] 이 체험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청중 및 사회자와 함께 발화하느냐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박완서에게 민감한 영역이었다. 이는 그녀의 지적 기반이 식민주의 체제 하에서 접근한 일본어 텍스트와 일본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완서의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식민지시기와 겹쳐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의 성장에 개입되어 있는 식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

28 서석배, 「단일 언어 사회를 향해」, 『한국문학연구』 제29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213-217쪽.

29 박완서에게 작가로서의 자양분이 일본어 독서에서 비롯되었다는 경험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아름은 박완서가 인터뷰(「저문 날을 건너오는 소설」(1991)), 토론 및 질의응답(2001년 3월 서울의 독일문화원에서 열린 독일문인들과 함께한 행사, 다와다 요코, 「서울: 강요받은 엑소포니」, 유라주 옮김, 『여행하는 말들』, 돌베개, 2018, 86-87쪽 참고)과 하나의 산문(「포스트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2001))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일본어 독서 체험을 진술하는지 분석했다. 한국의 문학평론가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 소설을 읽은 경험을 말할 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작가 이름은 생략한 채 '연애소설'과 같이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일본 출신의 작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이중언어 상황을 강조하면서 일본 작가들의 소설을 독서했던 경험을 말하고, 프랑스 기관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 소설 독서 체험을 생략한다. 안아름, 「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텍스트성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44-46쪽 참고.

그녀가 서울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던 당시, 공적 공간에서는 일본어가 조선어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자 무지의 증거였으며, 근대적 지식과 만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경유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주의적 상황과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싱아』는 이러한 식민지시기의 이중언어 상황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언제나 일본어와 일본 문화의 우위성에 동의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나'가 소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모친이 한국어로 조선이나 중국의 서사를 들려준 것을 즐거운 기억으로 상기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 엄마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혹 팔아먹은 얘기, 단 방귀 장수 얘기, 콩쥐 팥쥐, 장화 홍련 등은 할머니한테도 여러 번 들은 거였지만 엄마한테 들으면 새 맛이 났다. 엄마는 그 밖에도 모르는 이야기가 없었다. 박씨부인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수호지, 삼국지 등 내 나이엔 어려운 이야기까지 엄마는 내 수준에 맞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
> 나는 그중에도 박씨부인전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몇 번씩 졸라서 또 듣고 또 듣곤 했다. 처음엔 심심풀이 삼아 자진해서 해 주던 이야기에 내가 흠뻑 빠지자 엄마는 "이야기를 바치면 가난하다는데."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다시 이야기보따리를 풀곤 했다. (…)
>
> 가장 궁핍했던 시절 엄마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 것은 사실이나 나쁜 영향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학교 다니는 동안 동무 없이도 심각한 불행감 없이 그 외톨이 상태를 거의 즐기다시피 했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그런 건방진 능력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30]

'나'는 조선어 화자인 모친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그 당시에 "큰 위안이 되고, 힘이"

30 박완서, 앞의 책, 123-124쪽.

되었다고 회상한다. 이는 '나'와 모친이 혈연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모친의 이야기는 총독부의 규율하에 구성된 상황이 아닌, 일본 식민주의 이전의 세계를 배경으로 삼고, 한반도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씨전이 '나'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씨전은 박씨라는 여성이 조선에 침입한 청나라의 장수를 물리치는 사건이 포함된 이야기이다. 이 서사구도를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는 일본에 조선인 여성이 저항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모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그녀가 강제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일본'과 '일본어'의 질서와 관계없이 이야기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친의 이야기는 허구적 성격과 더불어, 현재와 거리가 먼 전근대를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31] 갈수록 강화되던 전시(戰時)의 분위기로부터 거리를 두기에도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한국어'로 한반도에서 창작된 이야기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총독부가 설립한 부립도서관에서 일본어로 독서할 때에도 모친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는 '나'에게 식민지시기에 독서 행위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도서관 이용법과 도서관 위치를 배운 후, 친한 친구의 제안으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가르쳐준 도서관에는 아동 도서실이 없어, 두 사람은 그 근처의 다른 도서관을 방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

> 수위 아저씨가 가르쳐 준 딴 도서관은 거기서 가까웠다. 지금의 조선호텔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립도서관이었다. (…)
>
> 그날 처음 빌려 본 책이 『아아, 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용으로 쉽게 간추려진 『레 미제라블』이었다. 물론 일본말이었고 삽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읽는 재미에다 황홀감을 더해 주었다. (…)

31 장성규는 식민지시기 말기에 '동양'을 재발견하는 식민주의적 흐름과 맞물려 오히려 식민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작가의 문제의식을 형상화하는 "탈식민적" 역사소설 장르가 성장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 유형의 탈식민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1호, 우리어문학회, 2010, 536-543쪽.

> 매일 밤 꿈에서 왕이 되는 행복한 거지와 매일 밤 꿈에서 거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왕 얘기도 그때 읽었고, 복순이가 먼저 읽은 『소공녀』도 물론 따라 읽었다. 소공녀 세라도 하녀로 전락한 후 어느 때부터인가 문득 밤마다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과 훈훈한 난로를 꿈처럼 경험하게 된다. 나에게 부립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은 바로 그런 꿈의 세계였다.[32]

'나'의 독서경험은 식민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간의 목적을 전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가 책을 읽던 공간은 "지금의 조선호텔 정문 바로 건너편"[33]에 있는 당시 경성부립도서관 본관으로 보인다. 이 도서관은 경성부가 일본인 이용자들을 염두에 두고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에 설립하였다.[34] 한때 조선인이 운영하다가 경성부에 그 운영권을 넘긴 후에도 조선인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던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과는 달리, 이 도서관은 일본인 남성 이용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도서관은 아동도서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이용자들은 소수였지만 그중에도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35]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선인 여성이자 아동으로서 매주 도서관을 방문하여 독서에 열중하는 '나'의 존재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총독부가 설립한 도서관에서 일본어로 책을 읽지만, 일본어로 번역된 다른 지역의 문학을 읽으며 현실과는 다른 "꿈"을 꾼다. 이는

32 박완서, 앞의 책, 156-158쪽.

33 위의 책, 156쪽.

34 이 도서관은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인 거주민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김성태,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58쪽)

35 1926년 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면, 총 이용자 1,667명 중 여성은 28명, 그 중에서 아동은 62명을 차지하였다. 1934년의 경성보도연맹의 기사에 따르면, "여자 열람자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소수"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식민지시기 동안 도서관의 여성 이용자 수는 남성에 비해 매우 적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쭈주키 쭈구오, 「일제 시대 도서관 열람자 상황: 1922-1941년 경성과 인천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3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254-255쪽)

1937년 이후 식민지 조선의 교육현장에서 빠르게 강화되던 이데올로기인 "일본어=일본정신론"[36]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일본의 교육 정책 관료들이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조선인들이 '국체'와 '일본정신'에 더 가까워지리라고[37]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서술자는 향상된 일본어 능력을 바탕으로 서구의 소설 세계에 탐닉하면서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멀어진다. 해방 이후의 '나'는 이 시기의 독서 체험을 "공상"[38]이라고 명명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보면, 식민권력이 기대하던 바와는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경성부립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을 거스르는 서술자의 도서관 이용 방법은 식민주의적인 기관이나 정책이 항상 그것이 가진 목적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나'는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세계 문학 전집을 무료로 혹은 매우 싼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열심히 일본어 독서에 열중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는 여전히 수준 높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 소설은 이 상황이 '나'만 경험한 특이한 이중언어의 혼란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가르치던 국어 선생님이 그냥 우리말의 국어 선생님으로 눌러 앉아 있"고,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아 가면서도 어려운 의사소통은 으레 일본말이 튀어나왔"으며, "교과서 외에 읽을거리는 거의 일본의 소설류 아니면 일본말로 된 번역물이었"[39]다는 묘사들이 그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해방과 더불어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출판상황과 학술언어로서의 일본어의 위상으로 인해 식민말기와는 또 다른 이중언어 상황이 도래한 아이러니를 당시 남한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묘사한다.

해방기의 이러한 혼란은, 한국어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지배적 언어가 되기를 바라는 당대 지식인들도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36 나카바야시 히로카츠,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55-256쪽.

37 위의 글, 257쪽.

38 박완서, 앞의 책, 210쪽.

39 위의 책, 215쪽.

받아들였다.[40] 박완서는 식민잔재를 '처단'하는 시기에 식민잔재가 실상 남한사회 형성기의 토대이자 식민지시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모두 공유했었다는 기억을 복원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모두가 식민주의에 동조했다는 논리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려는 시도처럼 읽힐 수도 있지만, 그보다 식민주의와 친일파 청산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만을 향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내면화한 식민주의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독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완서가 2000년에 발표한 글을 참고해볼 수 있다.

박완서는 〈2000년 서울국제문학포럼〉에서 발표한 글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에서 해방이 되면서 마치 한국어가 한국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것 같았으나 영어를 비롯한 여타 '서구의 언어들'이 더 대접받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구미 작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으면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눅이 든"[41]다며, 그녀의 '언어 사대주의'를 고백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자신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과거 프랑스에서 주관한 한국문학 포럼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영향받은 작가들로 한국의 구비문학과 한국 작가들을 꼽는다. 관계자가 '외국' 작가는 없느냐고 되묻자, 그녀는 러시아 작가 둘을 나열한다. 이후 프랑스의 포럼에서 상영된 영상에는 그녀가 러시아 작가들만 꼽은 것처럼 편집되었다.[42] 이에 대해 그녀는 "그런 것이 바로 문화 강대국이 약소국의 낯선 것을 대하는 오만이 아닐까"[43]라며, 구(舊) 식민자들이 '변방'과 '중심'의 위계질서를 은연중에 재생산하면서 '중심'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식민주의적 욕망을 지적한다. 다시 말하자면, 피식민자로서 차별받으면서 제국의 언어로 사고하고 지식을 축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그녀가 '언어 사대주의'로 부르는 지구적 문화 식민주의에 비판적이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식민주의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0 서석배, 앞의 글, 119-211쪽.

41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김우창·피에르 부르디외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1, 661쪽.

42 위의 글, 661-663쪽.

43 위의 글, 662쪽.

4 공동체의 차원에서 재고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기억

한국 사회에서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진술이 미디어에 등장하고, 이들의 존재가 일본의 교과서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논의된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이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논의되지 않았다.[44] 그러나 1980년대 말 한국 사회운동계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 결성되는 등 여성운동이 성장하고, 1990년 일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 발표되고, 1990년 11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목소리를 내오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대협'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1991년 '정대협'을 경유하여 김학순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진술하면서부터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45]

이 같은 1990년대 초반의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박완서는 이전에 「엄마의 말뚝 1」에서 식민지시기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짧고 간단하게만 서술했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억[46]을 1990년대에 『싱아』를 비롯하여 단편소설 「그 여자네 집」(1997), 「J-1비자」(1998)에서 반복한다.[47] 이들 소설에서 언급되는 '위안부'와 관련된 서사의 공통점은 실제로 전장에 동원된 '위안부'를 재현

---

44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 1991년 이전 대중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28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367-371쪽.

45 이에 관한 연구는 이나영,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구술사연구회, 2018, 191-230쪽 참고.

46 이 소설에 나타난 '위안부' 관련 기억은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면서 오빠와 엄마가 '나'에 대해 "시집보내기는 너무 이르고 정신대 안 걸리기엔 나이 갔다"(박완서, 「엄마의 말뚝 1」, 『박완서 소설전집 7: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2판, 2004], 57쪽)라며 걱정하는 장면이 전부이다.

47 1988년부터 연재된 『미망』에도 '위안부' 관련 에피소드가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박완서의 소설들은 일본군이 무작위로 10대 중후반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 나이대의 여성들이 열 살 이상 나이가 많은 남성들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이것이 이 여성들과 주변인들에게 당시는 물론 한참 지난 1990년대까지 이어진 비극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박완서의 '위안부' 서사는 '위안부'로 동원된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의 한국 사회에도 동원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자장 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를 낳는다.

박완서는 2000년에 간행된『일본, 그 슬픈 악연』이라는 책에「증언의 의무」라는 글을 싣는다. 이 글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소설들에서 재현된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에피소드들과 거의 유사하다. '증언의 의무'는 박완서가 자신의 문학창작 동기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므로, '위안부'와 관련된 사안 역시 그녀의 문학창작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박완서는 자신의 주변에서는 아무도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지 않았으나 "쌀가마 대신 창에 찔린 소녀 얘기는 내 소설 중에 여러 번 반복되고 변형되어 나타난다"[48]라며, 이는 "모진 시대를 살아남은 자"로서 "증언의 의무"라고 밝힌다. 그녀는 이 '소녀'의 사건을 "정신대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의미화하여, '위안부' 강제동원을 '위안부'로 동원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박완서가 '위안부' 문제의 젠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유산이 식민 말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젠더, 지역차이, 그리고 계급을 유의하여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싱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서울과 박적골, 그리고 개성을 넘나드는 '나'를 통해,『싱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동원의 양상을 재현한다. 이 소설의 '나'는 15세가 되던 1945년 초에 돌아간 그녀의 고향에서 여성인 고향 친구들이

48 박완서,「증언의 의무」, 한국여성문학인회,『일본, 그 슬픈 악연』, 답게, 2000, 20쪽. 이 모티프는『미망』(1990),『싱아』,「그 여자네 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당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리한 결혼, 예를 들면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남성이나 징병 혹은 징용 직전의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들을 목도한다. 또한, 순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위안부’로 징용될 것이 두려워 짚더미에 숨어 있다가 숨겨둔 식량이 있는지 검사하던 순사의 창에 찔려 숨진 또래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다.[49] 강제동원을 피하기 위해 1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순사를 피해 숨거나 갑자기 결혼하는 박적골의 상황은, ‘나’와 ‘나’의 오빠가 서울에 있을 때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일에 동원되는 상황과 대조된다. 이 소설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군수물자를 보충하기 위한 동원을 도시에서는 주로 물자생산 참여로, 농촌에서는 식량과 강제 인력 수탈로 재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동원에는 여성은 ‘위안부’, 남성은 ‘징병’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젠더 차이가 분명하였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경우는 김부자가 ‘위안부’ 증언집을 토대로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주로 농촌의 가난한 가정 출신이라고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50]

『싱아』는 주인공 가족들이 전쟁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원인을 그녀의 고향 사람들과는 다른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 덕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계급 차이가 강제동원에 미치는 영향도 드러낸다. 이 소설은 ‘나’를 통해 숙부가 하급 관료였고 오빠가 일본 철공소 직원이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식량 수탈과 징용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식민 말기의 생활상의 고통이 계

49 「엄마의 말뚝 1」에서는 이 장면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해 숨은 여성의 사례가 아니라 징용을 피해 숨은 남성의 사례로 묘사된다. 이를 통해 1981년 초반 당시 ‘위안부’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할 수 있다.

50 김부자, 조경희·김우자 옮김,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교육』, 일조각, 2009, 320-341쪽. 1943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정옥의 사례에서도 학력과 계급에 따라 전쟁 동원의 양상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학교에서 1943년 11월에 어떤 종이에 반강제적으로 지장을 찍게 하자, 이를 정신대 동원에 동의하는 서류라고 생각하고 부모와 상의한 후 학교를 자퇴한다. 자퇴하지 않은 그녀의 동급생들은 정신대로 동원되는 대신 ‘지방지도원양성훈련소’로 끌려가 군대식 훈련을 받은 후 지방으로 송출되어 다른 사람들을 군인으로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정옥(김수진 대담·정리), 「“얘들, 어떻게 됐나? 내 나이 스물, 딱 고 나이라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前)공동대표 윤정옥」, 『여성과 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105-108쪽) 이 사례 역시 교육 수준과 계급에 따라 노동력 동원의 양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급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식민주의의 수탈과 폭력의 피해가 모두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아』는 앞서 언급한 창씨개명과 책읽기의 사례와는 달리, '위안부' 강제 동원은 식민주의에 의한 분명한 전쟁 피해로 재현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나'가 서울의 식량난이 극심해져 소개령을 이용하여 개성으로 전학을 결정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인 박적골에 머물 때의 상황이다.

> (…) 우리 마을은 아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갈잎 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그 창 끝에 옆구리를 찔렸다는 소문은 너무도 끔찍해 백주의 악몽이었다.
>
>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마침 그보다 며칠 전에 딴 마을에서 우물에서 물을 긷던 소녀를 일본 순사가 정신대로 끌고 간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소녀의 부모가 동구 밖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딸을 거기다 감춘 것이었다. 사람을 빼앗기는 건 먹을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고 사람과 먹을 걸 한꺼번에 빼앗기는 세상은 보나마나 말세였다.
>
> 말세의 징후가 도처에 비죽거리고 있었다. 나하고 동갑내기를 멀리 시집보낸 소꿉동무 엄마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조혼이 유행이었다. 극도의 식량난으로 딸 가진 집에선 한 식구라도 덜고 싶은데 정신대 문제까지 겹치니 하루빨리 치우는 게 수였고, 아들 가진 집에선 병정 내보내기 전에 손이라도 받아 놓고 싶어 했으니까.[51]

이 소설은 박적골에서는 식량 수탈과 징병은 성행했을지언정 아무도 '위안부'로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지만, 당시에 징병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위안부' 강제동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였음을 인용문을 통해 전달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성은 "정신대"로, 남성은 "병정"으로 수탈되는, 분명한 인력

5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1992[2021, 5판], 179쪽.

수탈의 젠더 차이다. 이는 이후 전쟁의 피해 역시 젠더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예견하게 한다. 박완서가 자신의 한국전쟁 경험을 서술하는 것처럼, 이 강제동원의 상황 속에서 희생된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증언의 의무'로서 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소설들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못한 이유는 1990년대 이전에 '위안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할만한 토양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현아는 1990년대 초반 '위안부' 강제동원이 화제가 되었을 때 신문 등 대중매체가 주로 세속적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지적한다.[52] 또한 '위안부' 피해생존자 당사자들의 증언과 인터뷰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는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그들의 과거를 공개했다는 후련함도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 논한다.[53]

이 소설은 1990년대 초반의 만연한 '위안부' 재현 방식과는 다르게, '위안부' 강제동원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복원'하고,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구술과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공동체에 미친 피해와 이 기억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즉,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강제동원의 공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의 복권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양현아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거의 대다수가 김학순의 증언 이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한국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한국 남성에게 속해있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정조' 인식에서 찾는다.[54] 역설적이게도 『싱아』에서 강제동원을 피하기 위해 이른 나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같은 민족의 남성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이 때문에 목소리를 낼 공간도,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이처럼, 박완서는 비가시화된 식민주의로 인한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 현재 사회가 무엇을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고, 무엇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지 그

52 이러한 성적 대상화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위안부'를 소재로 삼은 소설들에서도 반복된다. 장수희, 「'증언 전후' 일본군 '위안부' 대중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93호, 현대소설학회, 2024, 227-252쪽 참고.

53 양현아, 앞의 글, 169-171쪽.

54 위의 글, 170-176쪽.

전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다. 이는 식민주의의 피해 중 무엇이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고, 되지 못하는지 결정하는 정치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박완서의 소설은 1990년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복원되는 것과 복원되지 않는 것의 정치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가 특정한 사건과 인물을 비난하고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 스며들어 눈치채지 못하는 식민주의의 유산들을 밝힐 필요성을 제기한다.

5 결론

이 논문은 박완서의 『싱아』를 중심으로, 박완서가 자신의 기억을 중심으로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창씨개명, 일본어 책읽기,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소설이 간행되던 1992년을 즈음한 시기에는, 민주화의 흐름과 더불어 일본 식민주의 청산과 식민지시기 재인식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 없던 '친일파' 명단 만들기와 이 흐름 속에서 진행된 '친일문학' 연구,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 진상규명이 점차 진행되었다. 이러한 당대 화제가 되던 이슈들에 대해, 박완서가 주류적 담론과는 달리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기억'을 근거로 어떻게 소설화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1990년대 초반이라는 시점에서 창씨개명은 개인의 '친일'을 상징하는 지표같이 여겨졌으나, 박완서의 『싱아』는 하급 관료 삼촌을 둔,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이 소설의 주인공의 가족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또한, 주인공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의 욕망에 따라 한편으로는 식민주의 정책에 동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대하기도 하는 등,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은 창씨개명을 비롯한 식민주의 정책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억압과 착취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보다,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식민주의 공교육이 조선어 교육을 중단한 시기에 초등교육 기관에 입학하고, 이후 이 시스템 안에서 중등교육까지 받는다. 이 소설은 일본어를 모르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주인공이, 일본어 능력이 점차

성장하면서 일본어로 출판된 책들을 읽으며 문학적 소양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자 '기억력에 의존한 소설'이기 때문에, 박완서로서는 1990년대 초반 식민주의적 유산은 척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일본어 독서를 자신의 문학적 소양의 원천으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는 이 소설 안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나'가 일본어 독서를 통해 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의 유산이 오늘날 한국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여러 영역의 성장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는 단순히 식민주의 유산을 승인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식민주의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주인공이 목격한 '위안부' 강제 동원의 소문과 이로 인한 그녀의 고향과 또래 여성들의 변화를 다룬다. 주인공은 박적골의 상황을 중심으로, 그녀를 비롯한 주변인 중에서 아무도 '위안부'로 강제 동원당하지 않았지만, 강제 동원의 공포는 어떤 여성들을 죽음으로, 어떤 여성들을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내몰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위안부' 강제 동원의 문제를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10대 중후반의 여성들 그리고 이들의 주변인들도 피해를 당한 집합적인 사건으로 재현한다. 이는 1990년대 당시 '위안부' 문제를 다른 민족에게 침해당한 여성의 '정조' 문제로 인식하는 미디어와 문학적 재현들에서 후경화되고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위안부' 강제 동원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소설이 재현한 식민지시기의 기억들 중 창씨개명, 일본어 독서,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은 모두 특정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식민주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시기에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특정 유명인을 겨냥한 당시 식민 잔재 청산 담론과는 달리, 그 시기를 살았던 그리고 그 시기의 유산을 자양분으로 삼는 당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완서는 이 소설에서 자신의 '기억'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을 비롯한 동시대의 사람들이 식민주의를 내면화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이야기들이 폭발하는 가운데 '복원'되지 못한 식민지시기 기억들을 끌어와 식민주의에 대한 다층적이고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

는 박완서의 이 소설은, 1990년대 식민주의를 성찰하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지식하우스, 1992 [5판, 2021], 1-360쪽.

_____, 『박완서 소설전집 7: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2판, 2004], 11-132쪽.

_____,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6: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13, 188-214, 278-312쪽.

단행본

김우창·피에르 부르디외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1, 661-663쪽.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1, 돌베개, 1993, 159쪽.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3, 돌베개, 1993, 28-29, 72-74, 82쪽.

한국여성문학인회, 『일본, 그 슬픈 악연』, 답게, 2000, 20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57-58쪽.

김부자, 조경희·김우자 옮김,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 교육』, 일조각, 2009, 320-341쪽.

다와다 요코, 유라주 옮김, 『여행하는 말들』, 돌베개, 2018, 86-87쪽.

미야타 세츠코, 김영달, 양태호,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 학민사, 1994, 3, 73, 90-91 125-128, 146, 150쪽.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들』, 삼인, 2001, 157-176쪽.

논문

김성태,「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197쪽.
김영미,「박완서 문학의 세대론적 특성과 의미: 1990년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상허학보』제60호, 상허학회, 2020, 145-182쪽.
나카바야시 히로카츠,「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87쪽.
백동훈,「일제 시기 '內鮮共學制'의 운용 양상: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1-124쪽.
서석배,「단일 언어 사회를 향해」,『한국문학연구』제29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85-219쪽.
신주백,「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한국 근현대사 연구』제17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216-252쪽.
안아름,「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텍스트성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13쪽.
안주영,「일제강점기 경성(京城)의 음력설과 양력설: 북촌과 남촌을 중심으로」,『비교민속학』제68호, 비교민속학회, 2019, 185-239쪽.
윤정옥(김수진 대담·정리),「"얘들, 어떻게 됐나? 내 나이 스물, 딱 고 나이라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여성과 사회』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104-137쪽.
이나영,「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구술사연구』제9권 제2호, 한국구술사연구회, 2018, 191-230쪽.
이상경,「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여성문학연구』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27쪽.
이상원,「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일본어 교육의 실태: 사회적 교육기관을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제22권 제3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115-139쪽.
이선미,「박완서 소설의 "공모" 의식과 마음의 정치-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반교어문연구』제37호, 반교어문학회, 2014, 371-

400쪽.
_____,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상허학회, 2004, 403-432쪽.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 1991년 이전 대중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28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367-402쪽.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 유형의 탈식민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1호, 우리어문학회, 2010, 531-561쪽.
장수희, 「'증언 전후' 일본군 '위안부' 대중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93호, 현대소설학회, 2024, 227-252쪽.
정근식, 「시간체제와 식민지적 근대성」, 『문화과학』 제41호, 문화과학사, 2005, 146-169쪽.
쭈주키 쭈구오, 「일제 시대 도서관 열람자 상황: 1922-1941년 경성과 인천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3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245-272쪽.
한수영, 「'상상하는 모어'와 그 타자들: '김수영과 일본어'의 문제를 통해 본 전후 세대의 언어인식과 언어해방의 불/가능성」, 『상허학보』 제42호, 상허학회, 2014, 451-499쪽.

Abstract

Restoration of Forgotten Memory in Colonial Korea
: Park Wansuh's *Who Ate Up All the Shinga?* (1992)

Sangmi Bae

This paper examines how Park Wansuh's 1990s novels offer fresh perspectives on Korea's colonial period, focusing on *Who Ate Up All the Shinga?*. It explores themes like the Forced Name Change [sōsikaime], reading in Japanese language, and the forc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While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viewed the Forced

Name Change as the evidence of Japanese collaboration, the novel reveals that active collaborators did not always undergo name changes, unlike ordinary people who did so to avoid disadvantages. The novel also highlights that reading Japanese books was crucial for literary and intellectual aspirations during and after the colonial era. Finally, it contrasts the 1990s media's portrayal of comfort women with its gendered impact on girls and their communities, urging critical reflections on unresolved colonial legacies.

Key words: Park Wansuh, *Who Ate Up All the Shinga?*, Memory, Colonialism, Democratization, Restoration, Forced Name Change [sōsikaime], Reading in Japanese, Comfort Woman

논문투고 / 2024.07.14.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